

권은희 “김용판 전화는 외압... 격려는 거짓말”

“새누리 ‘포털규제법’ 추진

“대선플랜’ 시나리오 따른 것”

■ ‘국정원 사건’ 2차 청문회 진실규명 공방

‘가림막 증언’ 댓글女 “대선개입 지시 없었다”

여 “중복 세력 대응” 야 “대선 영향 미쳤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9일 국회에서 실시한 청문회에서 여야는 명확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증인들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야당은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정치·선거 개입이었다’, ‘대선 직전의 경향 수사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댓글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정에서 뒷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등 주장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중복 세력의 선동에 대응 차원이지 선거 개입은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 주력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 경향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댓글 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과정(중간 수사 발표)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도 나왔듯이 대선 개입 자료는 빼고 발표한 것”이라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경찰 측에서 나온 다른 증인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전 과장은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난해 12월12일 전화에 대해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권 전 과장은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직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준비 중이었는데, 김 전 청장이 ‘내사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게 맞고 검찰에서 기각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격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서울경찰청장에서 수서시 지능팀으로 전화를 걸어 ‘키워드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소개하며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 축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분석 작업을 진행했던 김보규 서울경찰청 디지털범죄수사팀 팀장은 “권 전 과장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상부에서 조직적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가림막 안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선거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원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으로부터 선거 개입 지시를 받았느냐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 자신의 인터넷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복 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청문회장에 가설된 ‘가림막’ 안에서 증언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는 추가 증인 채택과 증언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등 잠시 파행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의원들이 수사관련 영상물을 보여주며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직원 전라도 모욕’

시민 소송단 700명 모집

통합진보 광주시당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을 통한 전라도 모욕에 대한 시민소송단 700명을 모집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와 동네별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소송단 518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소송인원이 700명으로 늘었다. 시당은 시민소송단 700명의 법적대리인으로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을 선임해 곧바로 법적 준비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은 “시민소송단 모집 과정에서 국정원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하는 뜨거운 민심을 느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오만하고 불의한 국정원의 모습을 시민의 힘으로 법정에서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법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민소송단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직원이 ‘질라디언’, ‘홍어’ 등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5·18민중항쟁을 왜곡하며 전라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심상정 “무안 몽탄역·화순 이양역 폐쇄 재검토해야”

정의당, 광주서 호남권 지방의원·시도당위원장 간담회

정의당이 19일 광주에서 호남권 광역·기초의원과 호남권 시도당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일탈을 저지할 헌법적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상식

적인 의무인데도 박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인 양 외면하고 있어 분노를 느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국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가정보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를 광주시와 5·18 단체에 통보도 하지 않고 철거를 한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광주의 귀중

한 유적과 정신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무안군 몽탄역과 화순군 이양역을 오는 9월부터 무인화하고 연말에는 폐쇄하려는 방침을 세웠다”며 “코레일은 역 폐쇄 계획이나 다름없는 무인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국회의원단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전북 부안군 변산에서 이틀간 워크숍을 갖고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 및 국정감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 결산심사 올해도 부실 우려

여야, 일정도 못잡아

국회의 2012년도 결산안 심사가 올해도 부실 진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기결산에 따라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소집에 앞서 이달 말까지 전년도 집행된 예산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여야가 아직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8월말까지 결산안 의결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결산 심사의 첫 단계인 삼임위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산안은 ‘각 삼임위원회 예비심사’에 결의 종합심사→본회의 의결 단계로 처리되는데 지난 6월부터 계속된 ‘국

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대화록 공개 정국’에서 결산안을 검토한 삼임위는 없다.

예결위 관계자는 19일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모든 삼임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현재 분위기에서 결산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가 뒤늦게 결산 심사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촉박한 일정 탓에 예년처럼 불과 2~3일 사이에 ‘수박 결함 기사’으로 심사하는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결산 공청회도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회가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2011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결산안은 처리 시험을 지키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